

지역 소식 통

고창군, 2025년 관내 개별
공시지가 결정 · 공시

고창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
으로 조사한 관내 23면5,327필
지에 대해 4월 30일까지 결정 ·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5%가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러
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
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이를 반
영한 결과이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
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 ·
면 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
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파로 방
문하거나, 팩스 · 우편 등의 방
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
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
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내소사권역 공공
시설 지역주민 본격 운영

부안군은 내소사면역단위종합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물의 운영 · 관리를 내소사서포
라마을 유한회사가 맡아 이달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
용할 수 있는 복합 여가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
로는 볼개마실센터, 캠핑장 물
놀이장 야외무대, 연식파교라,
천연잔디 축구장과 축구장 잔
디블럭 주차장 등이 있다.
이번 운영 전환은 주민 중심
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 시
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
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특
히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시
설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지
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
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마실축제 폐막, 흥행 대성공

관광객 19만여명...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등 프로그램마다 인파 북새통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
실축제가 지난 2일 개막해 5일 폐막식
을 끝으로 성료된 가운데 굵은 날씨와
추위가 지속되는 기상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19만여명(5일 오후 6시 기준)을 불러
모아 흥행에 대성공했다.
올해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기운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이를 반
영한 결과이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
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 ·
면 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
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파로 방
문하거나, 팩스 · 우편 등의 방
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
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
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폭우와 추운 날씨도 무색하게 했다.
축제기간 주 무대 인근에서 진행된
'부안 특산 팝업 스토어' 등 부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4일 동안 4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
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인기 TV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에 출연해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부안
의 백합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마실 쿠킹 라이브(최현석의 봄날의
선물)',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핑크퐁과 튠트럼의 댄스파
티', 특별한 공간에서 별빛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영화를 즐기는 '별빛
영화극장'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도
6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북
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 골드비를 추첨을 통
해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인
'황금몬을 선물합니다'가 진행된 폐막
식과 송가인 · 진성 · 김미주 등 인기
가수가 총출동한 폐막공연에도 6,000
여명이 찾아 축제 마지막의 아쉬움을
덜었다.
이는 폭우와 추위, 10℃ 이상의 일교
차 등 유래 없는 5월의 변덕스런 기상
여건을 고려하면 큰 성과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마실축제는
이웃마실에 마실 나오무 축제장을 찾
아 부안의 역사, 인물, 자연, 문화자원
등 부안의 모든 것을 느끼면서 즐기는
축제"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지난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온 가족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잘 놀GO! 잘 웃GO! 잘 크GO!’

정읍시, 5월 5일 어린이날 대축제... 정읍제일고 운동장서 열려

정읍시가 지난 5일 제103회 어린이
날을 맞아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
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지희)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
는 '잘 놀GO!, 잘 웃GO!, 잘 크GO!' 라
는 신나는 주제 아래,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할 예정이다. 우천
시에는 정읍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흥겨운 디스코 장구와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으로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 개최

고창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고창창원회의소(회장 박재호) 주관으
로 '고창JC와 함께하는 103회 고창군
어린이날 놀GO! 웃GO!' 행사를 고창
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
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과 함께 즐거
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 마련
됐다. 10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군
민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버블 · 마
술 공연과 디즈니캐릭터 공연, 가중
명랑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 모범어린이 15명과 아동
관련 유공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창군
수 표창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행사장에는 페이스페인팅, 3D
펜 체험, 경찰 · 소방체험 등 총 18종
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아이들의 호
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생생한 체
험 활동이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정읍시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국관광
공사와 함께 '2025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관
광 사업체를 창업 · 경영할 주민사업
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관광두레 신규 주민
사업체 공모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
는 지역 주민 50명과 오충섭 한국관광
공사 전북지사장과 최인경 전문위원,
최준양 시 관광체육국장 등 관계자들
이 참석해 사업 설명에 귀를 기울였
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공동체의 자립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혁명도시, 농민봉기의 이유와 의미를 묻는다

정읍시,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10일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는 제4회 세계혁명
도시 연대회의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연지아트홀에서 열
린다. 올해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이다.
정읍시가 주목한 것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통해 근대혁명의 시발점이
된 '농민봉기'의 사건들이다. 독일농
민전쟁은 1524년 종교개혁가이자 혁명
가인 토마스 뮌처와 일대의 농민들이
봉건영주와 교회의 가혹한 세금과 토
지 수탈 등에 맞서 봉기한 사건이다.
이 봉기는 결국 10만여 명의 농민들이

학살당한 채 폐배로 끝났지만 훗날 독
일의 종교개혁과 근대체제 수립을 위
한 토대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대회의에서는
독일농민전쟁의 중심지인 뮌하우젠에
서 2명의 연사가 초청됐다. 뮌하우젠
기록보존실 안티에 솔름스 박사는 '독
일농민전쟁 500주년의 의미와 도시의
역사에 대한 고민'을 발표하고, 뮌하
우젠 관광재단 대표인 낸시 크루그는
'뮌하우젠의 역사와 도시문화의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특별히 프랑
스혁명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떤 상황

에 놓였고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가
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프랑스혁명
을 40년 이상 연구한 호주 멜버른대학
의 피터 맥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오후에는 처음으로 브라질 바이아주
의 카누두스 농민 봉기와 일본 나가사
키현의 시마바라 농민 봉기 사례도 발표
된다. 카누두스는 동학농민혁명과 비
슷한 1896년에 일어난 봉기로 브라질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내전으로 꼽힌
다. 카누두스는 가난과 불평등에 맞서
공동체를 이룬 농민들이 중앙정부와
맞선 사건이다. 브라질의 사례는 현재
한국 중남미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꼽
히는 외국아대 최금화 교수와 카누두
스 현지서 카누두스 민중연구소를 이
끄는 반델리 레이치 소장이 참여한다.
일본의 시마바라 농민봉기는 1637년
에 일어난 사건으로 세금정책과 기독교
탄압이 원인이었다. 농민들은 시마
바라를 중심으로 약 2년여간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학살
당하면서 봉기는 끝났고 이후 일본은
기독교를 전면 금지하게 됐다.
이번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는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중심으로
하되 세계 각국의 농민봉기를 새롭게
조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주최하는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연지아
트홀에서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이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